



정해욱 | (주)도화엔지니어링 전문
(hok88@dohwa.co.kr)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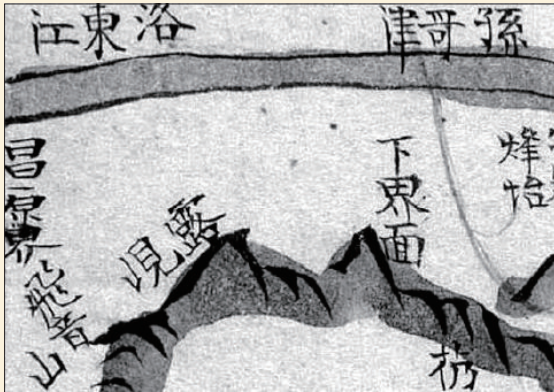
낙동강 (洛東江)

낙동강

낙동강은 낙(洛)의 동(東)쪽을 흐르는 강을 뜻한다. '낙동(洛東)'은 옛 이름 가야진(伽倻津)에서 알 수 있듯이 가락(伽洛-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공검면 일대가 옛 고령가야(古寧伽倻)의 땅이다. 상주의 동쪽으로 낙동강 본류가 남류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서 낙강(洛江), 낙수(洛水)도 역시 유래가 같다. 상주시의 '낙양(洛陽)은 중국의 낙양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낙양의 동쪽을 낙동(洛東), 서쪽을 낙서(洛西), 남쪽을 낙평(洛平), 북쪽을 낙원(洛院)이라 한다. 상주의 옛 이름인 상낙(上洛)이 부근에 있으며 여기에 조선시대의 교통제도인 역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형도의 지명을 살펴보면, 상주시에

낙양동이 있으며, 낙양동의 동쪽에 낙동면 낙동리, 서쪽에 낙서리, 북동쪽에 낙상동이 위치하고 있어 낙(洛)의 뿌리는 상주시와 병성천 유역에 위치한 낙양(洛陽)임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상주는 정사를 반포하는 손님과 일본에서 조공을 바치는 사신이 오고 가는 것이 줄처럼 연속하여... 상주가 그 폭주하는 중심이다.' 하였다. 정리하면 낙동은 가락의 동쪽, 낙양동의 동쪽, 낙양동이 위치한 병성천의 동쪽, 즉 상주시의 동쪽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동강은 상주시의 '낙'이 어근임을 알 수 있다. 낙동강은 신라와 가야가 일어난 터전이며, 강의 서쪽은 변한의 12국이, 동쪽은 진한의 12국이 있었던 지역이다. 고려 때는 이 강이 섬진강, 영산강과 함께 궁궐을 등지고 흐른다 하여 배류(背流) 3대강으로 부르기도 하였고, 또 조선시대에는 군사,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낙동강의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되었다. 경상남·북도의 구분은 산맥을 기준으로 소백산맥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야산과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뻗은 가지산, 비슬산을 이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구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낙동강 절류(絶流)'라 하여 낙동강의 강물이 끊어지면 왜적이 쳐들어온다는 속설이 전해졌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의 황부자 전설, 밀양시 낙동강변 남수정의 참고회재와 홍수 설화, 낙동강 하류의 김수로왕 남근(男根) 설화 등



『지승』 김해 낙동강 일대

수많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의 청량산도 릉공원, 안동시 하회마을, 예천군의 회룡포, 구미시의 금오산 도립공원, 김해시의 가야유적,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을숙도 철새도래지 등 여러 명소가 있다.

황산하에 관한 기록은 「신라본기」에서 '지마니사금 4년 가야가 신라의 남변을 침입하였다. 7월에 왕이 친히 가야를 칠세 보,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양산, 김해 간의 낙동강)를 건너니 가야인은 미리 군사를 덤불에 숨겨놓고 기다리었다. ... 왕이 간신히 에움을 뚫고 물러왔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서 '황지-삼척 도호부 서쪽 110리에 있다. 경상도 낙동강의 원류이다.' 하였다.

「택리지」에서 '황지(태백산 위에 있는 큰 못)는 천연적으로 된 물인데 산을 뚫고 흘러나와 북에서 남으로 흘러 용궁, 함창 경계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 낙동강이라 함은 상주의 동쪽을 말한다.' 하였다. 「연려실기술」에서 '낙동강의 근원이 태백산에서 나와 남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낙동강은 상주의 동쪽을 말하며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는 비록 지역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통틀어 낙동강이라 부르며 가야진이라고 한다.' 하였다.

그 외 명칭

▶ 가야진 伽倻津

낙동강 명칭의 하나이다. 가야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양산)에 옥지연(玉池淵)이라고도 하였는데 '황산강의 상류'

라 하였고 신라와 가야의 경계가 되었던 강이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모시는 악해독단(嶽海瀆壇) 중 독단(瀆壇)의 하나로서 "가야진이 양산에 있다"고 하였다.

▶ 구문소 求門沼

낙동강 상류의 현지 명칭의 하나이다. 황지천이 동남류하면서 생긴 이름으로서 천천(穿川)-뚜루내, 공연(孔淵)-구명소 등 여러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낙동강 발원지가 되는 황지천의 물이 동점동에서 큰 산을 뚫고 지나가면서 큰 석문(石門)과 깊은 소를 이루므로 이것이 구명소-구무소-구문소가 되었다. 또한 산의 석벽을 뚫었다 하여 천천(穿川)-뚫은내-뚜루내가 되었다. 공연도 역시 구명소의 뜻과 같다. 이 석문을 지난 물은 철암천을 합하여 경상북도 경계에서 낙동강 본류가 되며 도의 경계를 지나 봉화군으로 들어간다. 구문소는 유로변천의 좋은 예로서 이곳의 석문이 뚫리지 않았다면 황지천 물은 한강이나 오십천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부근에 뛰어난 명소가 구문소 8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문소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 개산강 開山江

예전에 경상북도 고령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지금의 고령군 개진면 개포 일대의 낙동강변을 뜻하는 이름으로 보인다. '개산(開山)'은 불교적 명칭으로 볼 수 있는데 인근의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이 나라를 통하여 운반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여지도』(양산) 가야진 일대



『대동여지도』(17첩 2면) 개산강 일대

▶ 낙강 洛江

예전에 영남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낙수(洛水)라고도 하였는데 모두 낙동강을 줄여서 불렀거나, '강' 대신 '수'를 붙여서 부르던 이름이다. 이는 낙동(洛東)-가락의 동쪽에서 비롯된 이름으로서 주로 문적이나 시인 묵객들의 문장에 사용되었던 이름이기도 한다.

▶ 삼배류수 三背流水

고려시대에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고려 때 무안의 용진강(龍津江, 현재 영산강), 광양의 섬진강과 함께 낙동강을 배반하여 흐르는 삼대수라 하였다. 배류란 강물이 왕성을 등지고 남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배류삼대수 또는 삼배류수라고 한다.

▶ 삼분수 三分水

조선시대 경상남도의 낙동강 하류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삼분수는 삼차수(三叉水) 또는 삼차하(三叉河)라고도 하였다. 낙동강이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경계에 이르러 하구에 발달한 을숙도, 명호도, 대저도 등의 여러 섬에 의하여 강물이 세 줄기로 나누어져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해동지도』 (김해) 삼분수(삼차수) 일대

▶ 소야강 所耶江

예전에 경상북도 성주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는 “성주목 동쪽 20리에 있으며 칠진(漆津)의 하류”라고 하였으며, 고려 말 왜구의 침

입 때 몸을 지켜서 소야강에 뛰어든 배열부의 순절처라고 하였다. ‘소야’는 가야국과 관련된 이름으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 태탄 太灘

예전에 경상북도 선산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태탄은 글자 그대로 ‘큰 여울’, 또는 ‘큰 물’을 뜻하며 『연려실기술』에는 “낙동강이 선산 북쪽에 이르러 태탄이 된다.”고 하였다.

▶ 황산강 黃山江

예전에 경상남도 양산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성호사설』에는 여섯 가야국이 동쪽으로 황산강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양산)에는 황산강 상류를 가야진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황산강은 황산하(河), 또는 황산진(津)이라고도 하였는데, ‘황산강’은 ‘한뫼가람’의 뜻으로서 넓은 들을 지나는 큰강으로 풀이한다.



『대동여지도』 (18첩 2면) 황산강 일대

▶ 황수 潢水

조선시대에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황수(潢水)’라는 이름은 정약용(丁若鏞)의 『아언각비』 등에 나오는 낙동강의 별칭이다. 낙동강의 발원샘이 되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黃池)를 본래 ‘황지(潢池)’라 하였으므로 그 발원샘을 따서 부르게 된 이름으로 보이나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